

금요 양성 2026년 10월 30일 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)

권고에 대한 집중 (15,17,18)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4-fa-ed-1-page-128>

[15. 평화]

¹ 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. 마태 5:9

²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때문에 마음과 몸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진정 평화의 사람들입니다.

[17. 하느님의 겸손한 종]

¹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보다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으로 자신을 더 높이려 하지 않는 “그런 종은 복됩니다”. 마태 24:46

² 주 하느님께 자기의 것을 바치기를 원하기 보다 자기 이웃에게서 받기를 더 원하는 삶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.

[18. 이웃의 고통에 함께 함]^a

¹ 이웃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,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웃으로부터 부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부축해 주는 사람은 복됩니다. 갈라 6:2 마태 7:12

² 온갖 좋은 것을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. 실상,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묻어두는 사람은 자기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 되며, 가진 줄로 여기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. 마태 25:18

토론이나 저널 쓰기:

- 권고 15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어떻게 영감을 줍니까? (가족, 친지, 소셜 미디어 그리고 정치적인 토론에서)

- 권고 17은 섬기는 봉사자나 형제회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?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섬기는 봉사자의 자질은 어떤 것입니까?
- 권고 18은 우리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? 이 권고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프란치스칸 특성이 필요합니까?